

# “젊은 불자를 만들자”... 한국불교 최대 과제

## 한국갤럽 종교 지형 조사서에 나타난 불교 현안

‘불교인 감소, 개신교·가톨릭인 정체 그리고 전체적 종교 인구 감소.’ 이것이 현재 한국 종교의 지형이다.

한국갤럽(대표 박우익)이 2월 12일 내놓은 <한국인의 종교 1984~2014>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 종교는 전반적으로 정체 내지는 침체 일로에 있다. 전체 종교 인구는 10년 전부터 감소하고 있고, 2030세대의 종교 이탈이 두드러진다. 젊은수록 종교를 의지하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종교인구 감소 부분에서 불교는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젊은 세대의 이탈이 3대 종교 중 가장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3040세대 경우 불교 인구는 지난 30년간 6%이상 감소했다. 그러다보니 2014년 조사에서는 2030세대 비율이 10% 내외, 5060세대가 30% 이상으로 연령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최근 2~3년 간 불교를 중심으로 한 힐링 문화, 템플스테이 등이 사회의 반향을 일으켰지만 이것이 젊은층, 고학력자 포교로는 이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도리어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어린이·청소년 포교 저하로 인한 폐해가 현재의 불교인 연령 양극화 현상을 가져왔다.

또한 불자들의 신앙 만족도 역시 낮은 편으로 집계됐다. 종교적 신앙심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21%만이 ‘불심이 깊다’고 말한 반면, 개신교인은 52%가 깊다고 응답했다. 기도·경전 읽기 빈도, 생활 속 종교 중요도에서도 불교는 꼴찌를 면치 못했다.

이는 조계종 정책연구기관인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가 지난해 발간한 여론조사에서도 잘 나타난다. 신앙생활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신앙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 개신교가 65.1%로 가장 높았으며, 가톨릭은 50%, 불교는 34.3%였다. 지계와 경전 읽기 빈도에서도 불교는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유승용 종교문화연구소 이사는 “불교인구의 감소는 불교가 내부단속을 못했기 때문”이라며 “현재 한국 종교계는 주변성원들은 탈락하고 핵심성원이 결속하는 구성원 양극화가 심하다. 불교에서 고학력자와 젊은층 이탈은 주변성원이 탈락한 사례”라고 분석했다.

젊은 불자가 줄고 고령화되는 양극화 현상이 예후가 좋지 않은 것은 ‘세대간 전승’에 있어서 불교가 뒤처지기 때문이다.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개종 경험률은 지난 30년 동안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종교별 신앙심의 자기 평가 : 신앙심이 ‘매우 깊다+깊은 편’ (%)

|      | 1984년 | 1989년 | 1997년 | 2004년 | 2014년 |
|------|-------|-------|-------|-------|-------|
| 불교인  | 35    | 31    | 28    | 20    | 21    |
| 개신교인 | 46    | 48    | 53    | 51    | 52    |
| 천주교인 | 49    | 39    | 38    | 29    | 35    |

### 10~30대 위한 포교 미흡하니

젊은 불교인 감소... 대책 시급

‘종교 세대 전승’ 비율 높아져

가족 간 포교 방안 마련 필요

### 스님 자질 향상 응답도 많아

‘교단 신뢰 높이기’에 총력해야

1989년 20%로 정점으로 올랐던 개종 경험은 2014년 10%로 절반으로 줄었다. 부모-자식간 종교 일치율은 높아지고 있다. 부모와 자식의 종교 일치율은 불교가 부친 일치 67%, 모친 일치 82%로 가장 높았고, 개신교와 천주교도 종교 일치율이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포교 효과는 지금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럴 경우 가족 내 세대 계승이 포교의 기본이 되고 종교 존립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가족 내 세대 계승을 위해 어린이·청소년 포교와 가족 단위의 신생활을 우선시 해야 한다”면서 “음력 중심의 법회 운영과 각종 성지 순례는 고연령층 여성에게 최적화돼 있는 만큼 보다 확장성 있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교 내부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도 시급하다. 한국인의 68%는 현재 종교가 진리보다는 교세 확장에 관심이 있고, 63%는 종교가 본래의 뜻을 잃었다고 평가했다. 수행자·성직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1984년 65%에서 2000년 이후 90% 이상을 상회하며 정점을 찍었다. 특히 조사에 임한 불자들 중 불교에 기대하는 요소 중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인 것은 ‘스님의 자질 향상’이었다.

유승용 이사는 “한국의 종교가 사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시민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종교가 사적인 자기 신앙만을 고집한다면 시민의 삶과 멀어질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 기부 릴레이 등 모금 진력 재단 활동 외연 넓힌다

동행, 11일 신규 사업 발표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이 올해도 기부 릴레이·봉족 나눔 캠페인 등을 선보이며 모금 활동에 적극 나선다. 이를 통해 대외 인지도를 강화시키고 재단 외연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2월 11일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공 스님은 “어두운 자리에 있는 힘든 이들을 위해 노력하는 한 해가 되겠다”며 신년 포부를 밝혔다.

재단은 40억원이 투입되는 거대 사업, 탄자니아 농업기술고등학교 건립기금 마련을 위해 전격질주할 예정이다. 현재 건립에는 24억원이 모금된 상태. 아름다운동행은 이사장 자승 스님이 소유한 선서화 2백여점을 비롯해 총 3백여점의 4월 전시회 전시회를 통해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다.

6천명에 불과한 후원자 규모도 계속해서 늘려간다. 기존 후원자에게 지인을 추천받는 기부 릴레이 캠페인 ‘인연’을 실시, 정기후원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불자들을 대상으로 모금서포터즈를 양성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저소득목자 가정 아동의 소원을 들어주는 ‘위시박스’는 올해 첫 선을 보이는 사업. 얼마 전 재단측에 3천만원의 기부한 목자의 뜻을 살려 마련됐다. 매월 두 명을 선정해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배현진 기자

## 불교명상지도자협회 본격 활동 시작

2월 6일 발족식 열고

회장 용타 스님 선출

자격증 발급 등 논의

지난해 11월 불교명상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발족된 불교명상지도자협회(회장 용타, 이하 협회)가 2월 6일 발족식 및 제1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발족식에는 행복마을 이사장 용타 스님,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장 인경 스님,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 불교상담개발원장 도현 스님 등 10여명의 불교명상 지도자 및 포교원인 명상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대표하는 명상지도자들이 참석했다.

불교명상지도자협회 초대회장을 맡은 용타 스님은 인사말에서 “명상 지도자들의 모임을 통해 어떤 뜻을 일구어 낼 것인가 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들의 과제”라며 열심히 활동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11월 불교명상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발족된 불교명상지도자협회가 2월 6일 발족식 및 제1차 회의를 가졌다.

초대회장은 행복마을 대표이사 용타 스님이 맡으며 부회장에 인경 스님, 자문위원에 혜거 스님이 맡았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향후 명상을 지도할 수 있는 교수배출과 불교명상 대중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국가공인 명상 자격증 발급을 위해 각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도 협회는 추후 열리는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추후 열리는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활동 계획과 정관 개정 등 전반적인 사업추진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한편 협회는 오는 4월 창립 총회를 연다. 협회는 총회에서 정관을 제정하고 2015년 주요사업계획 및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은 기자

## 불교통일론의 핵심은 ‘사람’

민추분, 2월 9일 불교통일담론 강좌 열어

“5.24조치에도 불구하고 남북 불교교류는 지속되고 있으며, 얼어붙은 남북 상황에도 불교도들은 서로 민족 동질성을 확인해왔다. 대북 교류에 있어 한국 불교 역할은 막중했다.”

이창희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사진)는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지홍)가 2월 10일 개최한 월례강좌 ‘불교통일담론의 모색과 실천’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통일에 대한 불교의 이론·실천적 지침이 될 불교통일선언을 준비중인 민추분은 관련 연구작업을 대중과 공유하기 위해 담론개발에 참여하는 이 교수 초청, 이번 강좌를 마련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1990년대 후반 검색된 남북 관계 속에서도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 불교도가 봉축 공동발원문을 채택한 것이나 이후 신계사·영통사 복원, 문화재 보존사업을 실시한 것은 대북 교류에 있어 불교 역할이 특목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평했다. 또 조계종단에서 공식 통일기구로 민추분을 설립, 조별연과



있다

정기 소통을 하고 남북 불교지도자들이 서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등 지속적인 교류를 해 온 덕분에 금강산 관광 실시분위기도 역시 마련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불교가 평화적 남북통일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 교수는 “불교통일운동의 장점은 민족정서를 바탕으로 한 합심의 통일에 있다”며 “현재 국민들의 공감을 바탕으로 마음의 일치를 이뤄낼 수 있는 불교통일론 구축에 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불교통일론은 사람의 통일을 최우선으로 두고 개발되고 있다. 제도의 통일도 중요하지만 우선되는 것은 민족통일이다”며 “통일 이후에도 실현할 수 있는, 사회통합의 미래비전을 담은 통일선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현진 기자

## 한반도불교기획단

새 수장에 법승 스님

2월 9일 총회서 선출

지난해 창립된 한반도평화통일 불교실천기회단(상임단장 법승·사진)이 상임단장을 기존 진관 스님에서 법승 스님으로 추대하고, 불교계 통일역량 증대를 위한 토론회를 3회에 걸쳐 실시한다.

한반도평화통일불교실천기회단은 2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회를 열고 이같은 상반기 사업계획을 밝혔다.

공동단장이었던 법승 스님이 상임단장이 되면서 세 명이었던 공동단장 한석은 공식으로 남게됐다. 또 기존 조영건 교수 역시 공동단장에서 물러나면서 이서행 민족통일문화연구소 이사장이 새로 공동단장에 선임됐다.

배현진 기자



## 보련 기획

✓ 사찰 직거래 특가 판매    ✓ 다량 주문시 할인

### 찬덕연등의 노하우를 보유한 불교용품 전문회사

| 연등 자동 승강 장치 |



| 인등시공 |



| 초파일 용품 |

만 월 등



※사찰명 인쇄 주문 접수중

공 단 등



황 금 등



LED 전구



- 초 절전형
- 수명 30000시간 보장
- 열 발산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보련기획

H·P 010-9446-1862  
TEL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